



각 분야 전문가들이 결집된 힘의 필요성

정보 공유를 위한 교류의 장 만들어

전대훈 / 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과 연구사

기 술인으로써 자격을 갖추었다는 기쁨, 만족감과 함께 저보다 더 실력이 출중하신 분도 많은데 기술사가 되어 부끄러우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껴집니다”라고 소감을 대신했다. 또한 “시험 준비를 하면서 새삼 포장기술의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하며, 예술의 범위까지 확대되는 종합학문이라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며 이번 포장기술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전대훈씨는 대학원에서 화학을 전공한 후 기업 연구소에서 폴리에스터필름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원재료를 활용한 중합에서부터, 필름의 제막(製膜), 중합물 및 필름의 물성 분석 기술에 관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가질 수 있었다. “포장용 폴리에스터 필름 공업화를 위해 안양의 중앙연구소, 구미의 필름공장, 울산의 중합공장을 뛰어 다니며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과에서 각종 식품 포장재의 위생안전성과 관련하여 기준·규격의 제·개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포장재에 포함되어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각종 위해 인자를 검출하는 연구사업 등도 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 포장에 대해 전대훈씨는 “원재료, 디자인, 물류, 법률 등 모든 요소가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하는 종합기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포장에 있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결집된 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장 2002년 7월 1일이 되면 재정경제부 소관의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됩니다. 환경부하(負荷)를 생각하여 단지 폐기비용 뿐만이 아니라 원재료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 및 최종 폐기, 재활용까지 모든 단계를 고려하는 제품수명분석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생분해성 수지가 속속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위생과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이 파악도 포장인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전대훈씨는 선배 포장기술사로부터 조언, 기술 등을 끊임없이 배우며 포장인들과의 정보 공유를 위한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며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포장기술사의 취득을 시작으로 새로운 마음가짐과 계획 하에 2002년 새로운 한 해 포장발전을 위해 열심을 다할 전대훈씨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